

“제가 신도들의 결집은

민학기 조계종 제2교구 신도회장



민학기 변호사는 ... 1955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난 민학기 변호사는 대구 계성고등학교를 거쳐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법조계에 입문해 대구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판사로 활동했다. 1998년 변호사 개업 이후 안산시 갑구 선거관리위원장, 수원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수원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7년부터 제2교구본사 용주사 고문변호사로 활동해왔으며, 2009년 1월 17일 제2교구 신도회장에 선출됐다.

여름이 한창이던 8월 중순, 경기도 여주 양자산 기슭 주어사에서 불자들의 기도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들 앞에서 천주교인들을 보호해줬다는 이유로 폐사된 곳을 되살리자며 독려하는 한 불자가 있었다. 바로 민학기 조계종 제2교구 신도회장(60·현우)이다. 민학기 조계종 제2교구 신도회장은 용주사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지역 불교계의 크고 작은 법률문제를 도맡아 온 열성 불자로 2009년부터 용주사를 비롯한 2교구 지역을 총괄하는 신도회장을 맡고 있다.

늦깎이 불자, 열과 성을 다해

민 신도회장(법명 현우)은 늦깎이 불자다. 민 신도회장이 불교를 접한 것은 1990년대,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이었다. 젊은 시절 사회정의 실현하겠다는 원을 지니고 법대에 진학한 민 교구회장은 이후 쌍용건설에서 회사생활로 주경야독을 하다 1986년 사법시험에 도전, 판사가 됐다. 대구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등을 거치면서 판사로 활동했지만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사회 정의나 행복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민 신도회장은 독실한 불교신자인 부장판사를 따라 등산을 하며 마음을 달랠다. 자연스럽게 산사를 찾으며 그 매력에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교리도 알지 못했고, 불교에 대한 용어도 생소했다. 하지만 불교는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다.

“불교를 접하고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실 전 기독교계 미션스쿨을 나왔습니다. 확장시절 배운 다른 종교는 항상 대립과 갈등 구조인데 반해, 불교는 화합의 구조였어요. 법조계에 일하다 보니 정의와 부정의가 대립하는 구조에 지쳐있던 저에게 불교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감로수였지요. 사실 우리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과 기름처럼 나뉘는 것이 아닌 비뚤어지게 얽혀 있잖아요.”

민 신도회장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절을 찾게 됐다. 반대로 늦은 나이까지 많은 종교를 경험했기에 불교의 가르침이 얼마만큼 앞서 있는지를 절실히 깨달았다.

“대구지법에 있다 경주로 발령이 났을 때였어요. 우선 급하게 거처를 구하다 보니 한 스님의 토굴에서 지내게 됐어요. 그것이 또다른 인연이 됐습니다. 그때 스님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며 불교를 새롭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후 아버님이 돌아가시며 장례 절차를 불교식으로 하게 되며 온 집안이 불자집안이 됐죠.”

여생 불교 가르침 실천하며 살 것

이후 1998년 수원에서 변호사를 개업한 민 신도회장은 본격적으로 교리공부에 매진했다. “불교를 알아가다 보니 스스로 교리에 대한 공부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민 신도회장은 경전을 읽기 시작했다. <금강경>을 비롯한 불교 경전을 시간이 날 때마다 읽고 익혔다. <법화경>, <금강경>, <아함경>, <수심결> 등 불교 교리 강의를 하는 곳을 직접 찾다니며 공부했다. 이와 함께 수원 지역 법조인들로 구성된 수원법조불자회에서도 매달 모임을 갖고 불교 공부를 했다.

이를 계기로 사찰의 법를 고문도 맡았다. 2007년부터 용주사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찰의 크고 작은 법적 문제를 도맡아 해결했다.

이후 민 신도회장은 인생의 남은 시간은 불교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고 원을 세웠다. 변호사 사무실 한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책상을 가져다 놓고 처음 불교를 접했을 때의 마음을 다시 되새기며 수행에도 매진했다. 바쁜 변호사 업무 속에도 틈나는 대로 절을 하며 수행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법조인 활동을 하며 심란한 마음이 일어날때면 절을한다”는 민 신도회장은 차분히 절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행법이라고 말했다. 민 신도회장은 매년 평창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3보1배 정진을 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기도 한다.

1990년대 판사 재직시 불교 접해

법조인 스테디모임하며 사찰 법률자문

2009년 2교구 총회서 신도회장 선출

교구신도회 활성화 최전선에서 활약

포교원장배 축구대회 등 행사 이끌어

“지역 공동 이슈 있어야 신도 결속”

최근 여주 주어사 복원 과제도 제시

교구 40여 사찰 릴레이 법회 개최

“신도활동에 스님들 거부감 없어야”

자성과 쇠신에 대한 재가자 동참 강조

사무실에 죽비 놓고 마음 다잡아

3보1배로 심란한 마음 다스리기도

민 신도회장이 제일 좋아하는 경전 구절은 <금강경>에 있는 ‘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 구절이다. 상에 집착하면 그로 인해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항상된 불변의 진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을 겪고, 지켜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틀린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교구신도회 활성화에 불교 미래 달려

민 신도회장이 신도회 활동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은 2009년이다. 당시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의 추천으로 2009년 1월 지역교구에서는 최초로 교구신도회장으로 선출됐다.

민 신도회장은 불교의 미래가 교구신도회 활성화

에 있다고 단언했다. 각 사찰 신도회가 주도적으로 교구를 구성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교구신도회가 사찰이 하지 못하는 불사를 맡고, 또 이러한 힘이 중앙신도회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 신도회장은 교구신도회장직도 각 사찰 신도회장이 대의원으로 참여하는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2교구의 경우 84개 사찰 중에 절반 이상 대의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45개 사찰이 참여해 선출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교구신도회에 힘이 실립니다. 사찰신도회에서 자신들이 구성한 교구신도회 활동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할 최후의 보루죠.”

불교계에서는 교구신도회가 정착이 되지 않았기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특히 일반 불자들이 지역불교계의 현안보다, 개인의 기도나 제적사찰의 불사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중요했다.

먼저 민 신도회장은 교구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민 신도회장은 “불교계는 행사를 하면 그 것으로 끝이다”며 “행사의 내용을 가지고 다른 행사에 활용하는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구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자료는 다른 신도회에 보내져, 제4교구 신도회 창립 등에 큰 역할을 했다.

또 민 신도회장은 2교구 신도회의 노력으로 불교계에 일어난 변화도 예로 들었다.

“첫 포교원장배 축구대회를 했을 때입니다. 당시 2교구 임원회의에서는 첫 회의가 때문에 다른 사찰 등에서 2~30명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구에서는 버스 3대를 동원해 120명이 참여했어요. 막상 가보니 다른 교구에서는 응원에는 참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다. 안되겠어서 저희만이라도 맵프, 사물 등 가져온 응원도구로 신명나게 응원했습니다. 2년차가 되니 저희의 응원이 입소문이 난 겁니다. 월정사, 동화사, 화엄사, 신흥사 등에서 활발한 응원을 펼쳤습니다.”

민 신도회장은 이러한 변화가 불교계 전체를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신도회장은 신도들이 자신의 원찰에서의 기도뿐만 아니라 불교계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화합심을 내고, 더욱 매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힘써 말했다.

주어사 문제, 교구신도회 활용 이슈

민 신도회장은 교구신도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교구 내의 공동의 이슈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구신도회는 활동거리가 없습니다. 모든 신도들은 자신의 원찰에서 신도활동하는 것에 만족하는 수준이죠. 또 교구신도회 임원들도 각 사찰의 임원을 맡고 있어 교구신도회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칫 교구신도회는 유명무실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구신도회에 꼭 참석해야 할 이슈가 있어야 합니다.”

또 민 신도회장은 이러한 이슈 형성은 교구신도회만의 특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어사 복원 문제가 바로 이런 이슈에 속합니다.”

since 1973

2015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르지·스노우지로 제작!!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 (051)515-8888 인터넷전화 070-7425-051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농협: 0515-8888-09 ◆국민은행: 9011-554-2988 [예금주: 강태규]



12월 / 6절





한지달력



상호인쇄



수첩달력



미니달력

• 12절(벽걸이형 小)달력
삼천부 이상 @ **800** 원
이천부 이상 @ **900** 원

• 200부 이상 @ 1,000 원
• 규격 : 25.8cm × 26.5cm

• 6절(벽걸이형 大)달력
삼천부 이상 @ **1000** 원
이천부 이상 @ **1100** 원

• 200부 이상 @ 1,200 원
• 규격 : 30.5cm × 31cm

•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600** 원

• 수첩달력 200부 이상
• 100부 @ 800 원 • 매수: 18장 @ **650** 원
• 규격 : 9.5cm × 13.4cm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100부 @ 600 원 • 매수: 16장 @ **450** 원
• 규격 : 8.9cm × 9.5cm

불교 지키는 큰 바탕



조계종 제2교구 신도회가 주최한 주어사 복원을 위한 기도 법회 장면. 민학기 교구신도회장을 비롯해 용주사·수원사 등 지역사찰에서 불자들이 참여해 릴레이로 법회를 열고 있다.



2010년 수원용주사에서 열린 교구신도회활성화 세미나 모습. 제일 오른쪽이 민학기 교구신도회장



2009년 열린 제11회 포교원장배 축구대회에서 활발한 응원을 펼치는 제2교구 소속 응원단의 모습

주어사는 작아도 사회적 의미는 큼니다. 스님들이 천주교를 보호하다 폐사된 곳을 천주교 측에서 자신들의 성지로 만들다니요. 인근에 여주 신록사가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은 교구신도회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본격화되면 중앙신도회까지 확장시켜야겠지요.”

민 신도회장의 생각은 적중했다. 주어사지 문제에는 용주사, 수원사, 신록사 등 40여개 사찰이 릴레이로 기도 법회를 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기도법회를 통해 신도들의 결속력이 강화된 효과도 얻었다.

“이웃종교에게는 이러한 이슈가 정기적으로 마련됩니다. 수원에는 월드컵 경기장이 있어요. 2만 명이 갖춰지면 대관을 해줍니다. 그 축구장을 매년 단일 교회 차원에서 체육대회가 열려요.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 신도들의 활동력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 2교구에서도 가족운동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러한 체육대회를 추진했어요. 그런데 예산 문제로 인해 좌초됐습니다. 너무나 아쉬웠죠.”

민 신도회장은 신도들과 사찰이 감당 가능한 수준부터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도들이 하나로 뭉치는 힘이 결국 불교를 지키는 힘

이 됩니다. 지속적인 이슈로 신도들이 기도 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에도 관심을 갖게 해야 할 것입니다.”

출제가 모두 열린 자세 갖쳤으면

민 신도회장은 이러한 신도들의 단체활동에 대해 개별 사찰 측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음도 지적했다.

“대형 운동화나 사찰순례법회를 하면 개별사찰, 스님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찰에서 활발히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 절 신도들이 그러도 도망간다는 것이지요. 모두가 함께 모여 방생법회 등을 해 환희심을 돌구면 좋은데 개별 사찰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교구신도회의 과제는 이슈 선정과 함께 활동적인 사찰 외에 다른 사찰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겠지요.”

이와 함께 민 신도회장은 재가 신도들이 스님들에게 예측되어 있는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신도회장은 교구신도회를 꾸려가며 가장 힘들었던 점이 각 사찰에서 스님들이 활동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해당 사찰 신도들이 참여하지 않는 점을 꼽았다.

“어떤 신도들은 교구신도회 활동에 참여해달라고 하면 ‘우리 주지 스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스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이 사찰 스님들에게 예측되어요. 스님들에게 자성과 쇄신을 얘기하지만 재가자들에게도 자성과 쇄신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능동적으로 불교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해요.”

민 신도회장은 또 “열정을 가진 재가불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정한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 신도회장은 어떤 사찰의 경우 재가자들이 편히 쉬 수 있는 공간조차 없으며 심지어 마련 등 이러한 세세한 배려를 통해 사찰을 찾는 이들을 불자로 키워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신도회장은 특히 직장에 은퇴한 60대 이후 세대들의 경우 소임을 맡기를 원하기에 이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는 초고령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퇴는 조기에 하는 시대죠. 보통 60세 이전에 은퇴를 하는데 90세까지는 삽니다. 그 30년의 기간을 종교가 매워줘야 합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불교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이들이 사찰로 왔을 때, 기도객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찰 내의 일정 수준의 역할이 주어지는 그 무엇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연꽃 같은 스님들

“자~ 스님들, 요기 보시다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하면서 웃으세요.”

인상 좋은 사진사의 말에 21명의 스님들이 웃음을 터트렸다. 청암사 승가대학에 재학 중인 학인들이 지역 대학교에서 2년간 사회복지 과정을 모두 마치고 졸업 사진을 찍는 날이다.

2012년 2월 절 밖 출입이 제한된 스님들이 승복 위에 사립대 학사모를 썼다. 학인들이 일반 대학에서 단체로 위탁교육을 받고 졸업하는 건 우리나라 승가대학 중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주지 스님, 이제 학인 스님들도 전문성을 갖춰야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현재의 승가대 4년 교육과정 속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과 과정을 연결하면 사회적

현장성을 모두 갖춘 전문 인력이 아쉬웠. 당시 청암사 승가대학 학장 지형 스님의 생각도 비슷했다. 특히 활동 폭이 좁은 비구니 스님들에게 매 주 절 밖으로 나가서 공부하도록 배려해 주신 것은 혁신적인 선택이었다.

“말씀대로 체계적인 교육으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래서 불교사회복지사 스님을 양성하는 일이 좋다고 봅니다. 불교가 잘되려면 지금부터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야 먼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결정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스님들의 통학을 위해 학교에서는 버스를 보내주었고, 학인들은 배움의 기쁨을 얻어 갔다. 나는 2년 동안 매 학기마다 비구니 스님들의 수업을 맡아 진행했다. 진지한 눈빛으로 스님들은



그림 · 박구원

지 활동이 증가하는 시대에 스님들이 사회 참여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김천에 있는 청암사 승가대학, 이곳은 천년고찰의 이미지와 다르게 2010년부터 전자수업 강의를 진행하면서 청암사 참살이라는 앱을 개발해 전통 사찰음식의 조리법과 명상법, 발우공양, 사찰예절법, 태극권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젊은 스님들을 위해 새로운 교육 환경을 적극 받아들이고 사찰의 문턱을 낮추어 대중들 곁으로 다가서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다.

내가 스님들이 자격증을 갖고 직접 복지활동에 나서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마하이주민센터에서 활동하는 스리랑카 출신 산프시리 스님의 영향이 있었다. 개인적인 시간 없이 24시간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휴대폰을 켜두고 생활하는 외국인 스님의 효율성이 보였기 때문이다. 스님은 2년간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어렵게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땀. 그 결과 자신 있게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자원을 연결해 주는 등 이주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도와주게 됨으로써 자격이 있고 없 없이 분명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성이 일하다보니 체계적인 이론과

강의를 들었다. 이십대와 사십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했다.

사실 ‘상구보리 화화종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해석하는데 대부분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제도한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위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으며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고 한 글자씩을 바꾸었다. ‘~하며’와 ‘~하고’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다. ‘깨달음’과 ‘구제’가 동시에 굴러가야 온전한 보살행이 된다.

지난 해 11월에는 졸업 후 처음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비구니 스님 두 분이 지역의 중증장애인 시설장으로 부임했다. 만일 학인들에게 사회복지의 길을 터주지 않았더라면 복지사업이 다가왔을 때 자격이 없어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올 해도 제2기로 비구니 스님 18 분이 재학 중이다. 노 스님의 선택은 이처럼 후학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부 속에 한국불교의 앞날을 준비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진요 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 구미 대운사 주지)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행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경상도 : 010-9190-3350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바로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불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대원선사 토끼뽕>로 이 유마경에 걸맞은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흠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총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